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4월 28일(주일) 제1489호



사진은 2023 '달려라풍당' 참가자들.

“건강한 가정을 위해 달려라풍당!”

4월 27일~5월 26일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5월 25일까지 달려라풍당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CGN과 온누리교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이하 달려라풍당)이 시작됐다. 4월 27일(토)부터 5월 26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4월 27일 오전 10시 달려라풍당 시작을 알리는 '스페셜데이' 행사가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강부호 목사 양재에서 개회사를 했다. 가수 이무송, 하다쉬뮤직, 개그맨 김기리, 이정규, 개그우먼 김혜선, 뮤지컬 배우 선우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개막식 이후 참가자들

은 도보, 자전거, 러닝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촌동과 양재동 주변 코스를 걷거나 달렸다. 올해 달려라풍당은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걷고, 달리면서 세대 통합을 이루는 가정회복 캠페인이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토)까지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מודooat)에서 하면 된다. 올해 달려라풍당 목표는 참가자 3천 명, 모금액 1억 원이다. 달려라풍당 참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걷기, 러닝, 라이딩, 등산, 캠핑, 게임 등 개인이

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한 다음 참가신청서에 기록한다. 후원 모금액은 km당 1백 원 이상이다. 둘째, 캠페인 기간에 활동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금액만큼 CGN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입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시상도 풍성하다. 최고사연상, 최다/최장거리상, 차세대어린이상, 베스트포토상 등을 시상하고 소정의 선물을 준다.

문의: 02-796-9800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5월 13일 오후 6시 50분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이 오는 5월 13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은 식사 및 나눔, 환영 영상 및 공연, 메시지, 결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버 박위, 가수 범키, 가수 f(x) 루나, 가스펠보컬밴드 CRUX, DJ PLASTIC KID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부모와 자녀가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신앙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을 4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한다. 이날 기도모임에서는 김영애 권사가 '2030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들려줄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지난 4월 22일(월) 열린 1차 기도모임에는 부모 208명이 참석했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참가자들은 반드시 카카오톡에서 '2030'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QR 참고). 집회 안내, 공지 알림, 문의 등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다.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인천온누리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주일 감사예배'를 4월 28일(일) 오후 1시 50분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영상 상영, 강부호 목사 설교, 주빌리찬양사역팀 특송, 케이크 커팅식, 서경남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국내 8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2021년 7월에는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4-4번지). 다음세대, 이주민과 유학생,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고 있다.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는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수고하며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인천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관련 기사 13면).

CGN 특집 다큐 '바울로부터' 파트2

4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한 편씩 공개

CGN이 특집 다큐 '바울로부터' 파트2를 지난 4월 25일(목) 공개했다. '바울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연대기적 서사로 풀어낸 CGN의 10부작 특집 다큐멘터리다. 바울 전문가로 불리는 최종상 선교사와 배우 차인표 집사가 출연한다. 지난 2월 15일 바울로부터 1편을 론칭했고, 매주 한 편씩 총 4편을 공개했다.

'바울로부터' 파트2는 5~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목요일 기독교 OTT '풍당'과 TV(오후 7시 30분 CGNTV 채널)에서 한

편씩 공개한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5월 9일(목)부터 매주 한 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바울로부터' 파트2는 디모데와 함께 떠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이야기다. 환상을 보고 도착한 유럽 땅 마게도냐 여정과 우상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 복음이 흥행하던 에베소사역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인의 선동으로 감옥에 갇히는 내용까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선교 역사를 자세히 담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5월 4~5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오는 5월 4일(토)과 5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 주차장은 지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어린이 3명 이상 카풀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5월 5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문의: 02-3215-3434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법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의 바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흩뿌리게 되듯 핍박의 바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작된 핍박의 물결로 인해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은 교회를 위축시키기보다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시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핍박의 시작은 형벌이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사건을 보고 그곳에 초막 세 개를 짓고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핍박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민족이 전 세계에 750만 명 이상 흩어져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흩어져 있었지만, 세계 복음화에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기여하는 것을 볼 때, 한민족의 흩어짐 또한 〈사도행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문제와 풀리지 않는 고난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의 전반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언제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이끌어지고, 좌절에서 축복을 만들어 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갔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5~8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의 시각에서 이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섬세하게 분별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병을 고치는 그가 바라볼 때 이것은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기적으로 낫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들을 그가 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빌립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 표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표적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도시에 믿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출입금지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합니다. 앗시리아가 했던 정책은 바벨론보다 훨씬 잔인하고, 교활했습니다. 잔인하게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게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은 피지배 민족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존중했습니다. 반면 앗시리아는 혈통을 섞었습니다. 이른바 사민정책입니다. 앗시리아의 주민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 강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앗시리아로 데려가 섞어버렸습니다. 강력한 이주 정책과 사마리아와 앗시리아의 혼혈정책을 써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순수 혈통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항상 돌아가는 지역이었습니

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문화적 장벽, 역사적 장벽,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 체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14~17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 물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와 같은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의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안수했더니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해석도 다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어떤 교파에서는 그때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세례이므로 ‘성령의 세례’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니 성령의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본문에 근거하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물세례를 받은 이후 기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규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로잡히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체험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고백했지만, 아직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세례는 시기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고,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음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동시에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체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온전히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순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100% 성령의 세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확신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고 했으니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그 피를 받아서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피를 바르면 보고 넘어가리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잠을 푹 잤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자고 ‘피의 양이 너무 적어서 못 보시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듯이 바르고도 밤을 샜니다. 여기서 불안해서 잠 못 이룬 그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너는 못 믿으니깐 들어가야겠다”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지만, 약속대로 바

르긴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신 대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안심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과 능력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없이 믿는 단계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 단계에서 확신과 능력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생명에 위협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제자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상황을 사모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체험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스테반처럼 순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 죽음이 두렵지 않은 기쁨

성령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모두 가짜 기쁨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경제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할 때 주어진 기쁨은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기쁨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명성을 날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돈을 줄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역사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항상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스테반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 전투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시몬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세속화하고 상품화하고 물질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을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다.”

시몬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령님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 위해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20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역사에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그리고 순교만이 어울릴 뿐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고, 망하게 하십니다. 한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역자들이 마치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역하다가 망했습니다. 결국 열매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때 성령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순수하게 쓰임 받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시몬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을 상품화하고, 마치 성령님을 자신이 다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될 때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많은 일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때 변질될까요? 선교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상관없어질 때입니다. 빌립이 표적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일과 상관없는 성령의 은사들은 그것이 치유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시몬과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선물이 주어진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깊은 체험을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저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는 삶이 언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헌신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바로잡습니다. 지난 주 신문(4월 21일자) 주일강단 본문에 ‘〈사편〉 66편을 인용해서’라는 문장은 ‘〈이사야〉 66장을 인용해서’가 옳기에 바로잡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신앙교육

대치동 로드맵 vs 킹스키즈(KING'S KIDS) 로드맵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들이 다 아는 유명한 말이 있다.

“입시에 성공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고, 취업에 성공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대치동 로드맵은 수학 선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치동 학원 가는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초등 의대반 모집 설명회’로 분주한 시즌이 된다. 작년 겨울, 공동체에서 ‘크리스천 부모교육’을 준비하며 해당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초등 의대반’에 대한 문의를 했었다. 그때만 해도 입학 대상이 초등 4학년부터라고 들었는데, 올해는 초등 1학년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등수능 수학을 어린이들이 풀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소식이 대한민국 교육계를 흔들고 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부모들은 중학생 자녀 입시를 위해 지방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지방의 특정 지역 전셋값이 상승했다는 뉴스도 돌린다. 6.25 전쟁 중에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교육 열정은 가히 세계적이다. 그 열정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기틀이 되었지만, 오늘날 보이는 교육열은 그때의 열정과 다르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특정 지역 비신자 가정에만 벌어지는 일일까? 실제 순예배에서 예비 초1 자녀를 둔 자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7세 고시’라

불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던 일화가 있었다.

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너그러워 보인다. 주변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둔 크리스천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 꽤 안도하는 듯하다. 주일학교에서 찬양과 율동을 집에서도 하고, 식사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 출석을 즐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녀의 신앙을 교회가 위탁 관리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일까? 학업과 신앙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보인다. 만약 자녀의 생애 발달과정과 특징, 신앙 발달단계에 관한 관심과 고민 없이 부모가 만든 대치동 로드맵으로 전력 질주하게 만든다면 자녀가 무엇을 먼저 내려놓을까?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크리스천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재 영적 환경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와 자녀들은 외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 매우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자기를 높이려는 우상과 나르시시즘의 집착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 한복판에 서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 속에서 유톨론, 젠더이데올로기, 네오마르크시즘 등 반기독교적 사상이 담긴 교육을 12년 이상 받고 있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세를 미리 파악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어하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크리스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울 수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문: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교육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그들의 두터운 신앙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훗날 로마 시대의 가혹한 핍박에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되었다.

오늘날 크리스천 부모교육의 킹스키즈(KING'S KIDS) 로드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 둘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교육열을 가져야 한다. 교육의 우선순위 깃발을 자녀의 신앙에 꽂아야 한다. 셋째, 자녀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훈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자

녀를 감싸고 돌며 죄성을 더욱 키우거나 죄에 대한 무감각을 길들이지 않도록 양육해야 한다. 넷째,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영적 불침번을 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를 ‘감수성’에 두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통일 감수성, 평화 감수성, 생태 감수성, 생명 감수성이다. 인간의 감성 또는 감정의 상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도록 교육하겠다는 교육목표는 성경적인 도덕적 기준과 판단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다. 가정의 중심에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의 마음에 거하면, 그 자녀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값진 인생을 사는 왕의 자녀로서 킹스로드에서 활약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될 것을 믿는다.



송현진 성도
(온누리세계관학교,
강남D공동체)

특별기고

노동의 의미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할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살까? 대부분 “생활비를 벌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한다”고 말할 것이다. “주말에는 휴가를 보내고, 취미를 즐기고,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척 콜슨이 “잠깐만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척 콜슨에게 일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삶의 일부였다. 해병대에서 법률사무소로, 국회의사당에서 닉슨 백악관으로, 특히 교도소 사역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이르기까지 척 콜슨은 하나님과 대의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일꾼이었다. 척 콜슨은 센터 직원들 대부분보다 나이가 몇십 년이나 많다. 하지만 직원들이 그의 열정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주말이 지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월요일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던 사람이었다. 동년배 친구들이 은퇴한 지 한참 후에도 죽는 날까지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을 맞

아 척 콜슨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노동 계층의 영웅’이라는 브레이크포인트 논평에서 척 콜슨이 했던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기리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육체 노동을 저주받은 하층민과 노예나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긴 큰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숭고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관점은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길드운동이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길드운동은 뛰어난 장인 기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장인들이 노동한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장려

했습니다. 길드운동은 현대 노동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닥을 닦든 정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에서 개신교의 직업윤리가 성장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공장을 ‘악마의 검은 뱀’이라고 표현했던 산업혁명 초기에도 기독교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당시 공장과 탄광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노예나 다름없었고, 때로는 기계에 묶여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영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상류층이 아닌 노동자 계급, 즉 석탄 가루에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냄비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의 양심이 쫓겼습니다. 웨슬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의 제자 윌리엄 윌버포스와 샤프츠베리경이 작업장 내 학대를 근절하는 법안

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영국의회는 아동 노동법, 안전법,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 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이 사라진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 여전히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노동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정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척 콜슨의 이야기 같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 이기에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과 당신이 하는 일을 모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솜씨가 빠어난 일은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창조주를 반영하는 것이다.



에릭 메탁사스
(작가, 언론인)

온누리가 함께 보낸 ‘장애인주일’

사랑, 친절, 배려, 관심으로 하나 된 축복의 장(場)

온누리가 함께 ‘장애인주일’을 보냈다. 지난 4월 20일(토)과 21일(일)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사랑’, ‘친절’, ‘배려’, ‘관심’을 주제로 장애인의 달 캠페인을 하고, 주일예배에서는 장애인들이 특수를 선보였다. 각 캠퍼스에서는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이 열렸다. 그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된 축복의 장(場)이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올해 온누리교회 장애인 주일 주제는 ‘사랑’, ‘친절’, ‘배려’, ‘관심’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주제처럼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배려와 관심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 표현이다. 장애인을 ‘장애우’,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옳다. 가끔 돌발행동(때리기, 소리 지르기 등)을 보이는 장애인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마광 형제(SNS청년부)는 고등학생 시절부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 예수사랑부 교사가 성도들에게 ‘예수사랑부 굿즈’를 나눠주고 있다.

터 장애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사랑부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만나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를 섬기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가 낮을 많이 가리는데, 어느 날 장애인 청년이 먼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 아름다운 경험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절’이었다. 장애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표현 방법이 친절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그가

먼저 내리거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친절이다.

정립원 성도(중국어예배공동체)는 장애인 주일을 보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화장실에 걸린 ‘장애인의 달 캠페인’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잘 몰랐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장애인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배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배려’였다.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는 미덕이 바로 배려다. 예를 들어 주일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교회 주차장을 먼저 사용하도록 양보하고, 화장실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양보하는 게 배려다.

박은희 성도(고양은평공동체)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장애인 주일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장애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석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영아부터 성인까지 장애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부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데, 그 시선이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관심’이었다. 교회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발달장애인을 만나면 부모나 선생님을 찾으러 같이 가자고 말을 걸어주는 게 관심이다. 목회지원실 담당 간사를 찾아가도 된다.

오미영 성도(예수사랑부)는 15년째 예수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그녀가 예수사랑부를 오래 섬기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고, 장애인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부에서 장애인들을 섬겨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훨씬 큼니다. 장애인을 무섭다고 생각하거나 피하지 말고,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사랑부 학부모의 간증



김영숙 성도
(강남B공동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많은 사람이 끊임 없이 살피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인이 되어도 자립해서 살아가기 힘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장애인에게는 더 필요한 과정이다.

2015년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아이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부에 등록시키면서 우리 가족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전에는 동네 작은 교회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예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장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일대일로 돌봐주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부 교사들 덕

분에 우리 가족도 아이로 인한 분산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매년 여름캠프를 위해 사랑부 교사들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2박 3일 동안 온전히 아이들을 섬겨주신다. 그 덕분에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한 큰아이고 잠시나마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착석도 제대로 안 되고,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순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아웃리치를 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순원들이 부담을 덜어주셨다.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다. 밤늦은 시간까지 순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가 집사님 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가끔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꺼내 마셨다. 그 아이에게 순원들이 사랑을 듬뿍 주셨다. 어느새 그 아이가 우리보다 순예배를 더 사모하고, 주말이면 사랑부 예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제는 차분히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공동체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이 함께 살

사랑 듬뿍 받고 자란 ‘한 아이’

아가야 하는 사회성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었다. 특수학교 중학교 진학을 위해 일대일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관 선생님이 아이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다고 하셨다.

우리 가족이 공동체에서 받은 큰 위로와 격려, 사랑을 사랑부 부모님들과 아이들도 받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사랑부에 오신 부모님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공동체 순예배에도 참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방과 후에 이용하는 센터 원장님이 아이가 성실하고 운동능력이 뛰어나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인 직장 운동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협회에 수영선수로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랑부 목사님과 교사들, 공동체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다. 모든 단계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한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한 아이’를 위한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지난달 4대 보험과 64세 정년이 보장되는 기업에 채용되었다.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이가 무사히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사랑부 교사들과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온 사랑부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아이와 함께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공동체 식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한결같은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다.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며,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맛있는 말씀 해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눅 1:2~3)

〈누가복음〉1장 2~3절에는 누가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 〈복음서〉를 어떠한 태도로 기술했는지가 나온다.

2절에 보면 누가는 두 부류 사람이 전해준 내용을 토대로 〈복음서〉를 저술한다고 언급한다. 첫 번째 그룹은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다. ‘처음부터’는 세례 요한 때부터, 즉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시기를 의미한다. ‘중간부터’ 들었다면 아무래도 앞의 이야기를 잘 모르기에 완전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달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누가는 이를 반영해서 〈복음서〉를 저술했다. ‘목격’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 경험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현장에

서 육성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활동하신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했을까? 받은 감동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전하고 싶었을까?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역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과 사역에 관해서 생생하게 듣고 싶었을 텐데 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모아서 〈복음서〉를 썼다.

두 번째 그룹은 말씀으로 된 일꾼들이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열두 제자를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열두 제자처럼 헌신한 자들에게도 사용하게 된다. 이 일꾼의 특징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누가는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으로 〈복음서〉를 집필했다.

3절을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집필하는 태도가 세 가지로 드러난다. 먼저, 누가는 ‘모든

일’을 살핀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라고 말하는 누가의 자신만만한 모습이 나타난다. 모두를 파악해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일부만 살피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반대 주장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누가는 그러한 악점 없이 균형 있게 〈복음서〉를 집필하는 데 힘썼다.

그다음으로, 누가는 ‘근원부터’ 살핀다. 어느 한 부분에 관해 글을 쓰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근원적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3장의 족보에 나타난다. 누가는 인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실제로 학문을 탐구하다 보면 결국 신적 차원의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조물주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

견되어 결국 신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누가는 ‘자세히’ 살핀다. 정확하고, 엄정하게 연구해서 〈복음서〉를 기술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매우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밀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제공한 내용을 잘 반영했다. 누가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귀담아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선명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한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S자매를 위해서!

S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S자매는 모태신앙이지만 20살 이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S자매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S자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S자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S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S자매가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매의 길을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S자매가 남자친구와 잦은 갈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자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불신자인 남자친구도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S자매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4월 29일~5월 5일
〈열왕기상〉 11:14~13:24



처음 모습과 말년의 모습을 비교하며,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삶의 결과를 묵상하자.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던 보호와 평화를 거두신다. 하나님은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다. 신하이자 큰 용사인 여로보암까지 솔로몬을 대적한다. 아히아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뜻을 전한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그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고 약속하신다. 솔로몬이 죽으려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이집트)으로 도망한다.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고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묵상포인트 1:

배교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는 보호심과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배교에 진노하셨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심판을 행하신다. 솔로몬의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 그분의 심판을 이루신다. 한편 열 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왕국의 분열과 패망의 길은 이렇듯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 시작된다. 지도자의 선택이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묵상하며 반면교사 삼자.

▶여로보암을 앞세운 열 지파는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고역과 명을 가볍게 해 달라고 청한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라는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 명을 더 무겁게 하겠다고 선언한다. 백성이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을 죽인 후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왕국이 둘로 분열된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용사 18만 명을 소집하지만, 스마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전쟁을 포기한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과 절기를 마음대로 정한다.

묵상포인트 3: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예언된다. 또한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다.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살길인지, 하나님 명령을 완수하려는 이의 마

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뱀엘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후일 요시야가 제단을 헐 것이라고 예언한다. 여로보암이 손을 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명하자 그 손이 마른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왕의 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예물과 음식을 거절하고 돌아간다. 뱀엘의 높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만난다. 높은 선지자는 자신도 선지자라며 그를 속여 음식을 먹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솔로몬이 배교하자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셨다. 인생의 대적자를 만났을 때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자. ▶중요한 순간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자존심을 세우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믿음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자. ▶르호보암처럼 고집과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내가 받게 된 징계가 무엇인가?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자. ▶여로보암은 왕권을 지키겠다는 욕망으로 불신앙적 정책을 펼쳤다. 열려와 조금함을 버리고 매사에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일을 진행하도록 힘쓰자. ▶끝까지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 사명 완수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

“자꾸만 사람을 잃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이 있습니까?”

1인 가구, 소셜네트워크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혼밥’, ‘나혼자산다’ 등 미디어와 문화가 오히려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누구도 관계에 균열을 내거나 관계가 무너지는 데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관계 맺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는 게 평생의 숙제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 맺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옮기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관

계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의 뿌리에 ‘기대’가 존재한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에 대한 반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뚜렷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누군가를 통해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기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변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낳은 게 기대라면, 결국 그 결핍은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채움을 경험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

둘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온전한 인간관계의 처음과 끝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과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건강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까닭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관철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인간관계에 두는 비중이 다르지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마저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연약한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없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긴 인생은 인간관계에서도 아름다움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영적 씨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과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와 만남을 통해 기쁨과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귄과 교제를 경험할 때 아름다운 열매처럼 뒤따르는 것이다.



정한효 목사
(W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배우자의 말에 ‘미러링’ 하기 (Mirroring)

배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 하면서 반영해 주는 방법이 ‘미러링(Mirroring)’이다. 미러링할 때는 배우자의 말에 다른 말을 첨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배우자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되돌려줘야 한다. 들었던 내용이 어땠던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돌려주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다. 사실 “여보! 우리 부부에게 대화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는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서로 직감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서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미러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미러링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가 불편하고,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감지될 때 미러링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대화에서 겸손과 섬김, 온유의 웃음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되돌려주는 ‘미러링’을 하는 중에 다양한 감정이 솟아날 수 있다. 관계가 불편해진 부부라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돌출될 것이다. 배우자의 말을 듣고, 미러링해 줘야 하는데, 마음에서 솟아나는 통제하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이 배우자를 향한 분노, 항변, 원망, 책망 등의 말들과 함께 튀어나오려고 할 것이다. 부부가 대화에 직면하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잠시 누르면서 배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미러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러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먹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녹고,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익이 따르기에 부부는

대화 가운데 서로 미러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러링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배우자의 의견과 생각, 느끼는 감정을 미러링해야 한다. 미러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배우자의 말에 집중해서 미러링 해줘야 한다. 부부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견해를 피력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의 말을 여유롭고, 낮은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온화함으로 생각과 견해를 나눌 때, 쉽지 않겠지만 우선은 배우자의 의견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 부부의 대화는 서로 변론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기에 우선은 배우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 봐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부부이기에 충분히 따라가 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부부의 대화는 충분히 미러링해주는 장면이라기보다 빨리 거부하거나 차단 또는 면박하는 장면이다. 익숙한 면박과 단절을 과감히 접고, 배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주고, 그 의견을 수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만 해줘도 배우자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느끼게 된다. 배우자와 좀 더 가깝

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생각을 미러링했다면 이제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도 미러링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당연하지만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잘 들어보면 배우자의 말 속에 수많은 감정 단어가 있다. 다만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 뿐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중에 배우자가 표현하는 감정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우자가 외로움을 말하면 외로움이라고 미러링해야 한다. 배우자가 낙담이라고 말하면 낙담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미러링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서로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몹시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은 절망을 느끼는 상황 이더라도 다른 사람은 절망보다 희망을 느낄 수도 있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배우자의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다.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자신의 감정도 마땅히 배우자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견해가 다른 배우자의 말을 순간적으로 면박을 주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면박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면박에서 더 나아가 비난과 즉각적인 수정작업을 시도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우선은 배우자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미러링해 줘야 한다. 자신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도 진지하게 배우자의 감정 단어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느끼는 생각과 견해, 감정을 미러링하면 대화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렁에 고착된 대화의 단계라면 미러링하면서 최악의 대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러링 기법이 필요하고, 더 나은 대화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미러링이 필요하다.

미러링을 잘할수록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줄일 수 있다.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봄으로 배우자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미러링을 통해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지?”, “내가 잘 이해했어?”라는 식으로 배우자의 말을 충분히 미러링해 주면서 더욱 친밀감을 경험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일터사역’의 의미와 비전 그리고 중요성



김명현 장로
(사회선교본부
일.하.세.팀 대표장로)

2013년 온누리교회가 ‘일터사명컨퍼런스’ 이사회회로 참여한 이후, 2016년 1월 이재훈 위임목사의 요청으로 일.하.세.팀(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사역팀이 출범했다. 일.하.세.팀은 사회선교본부

사회책임분과의 한 팀이며, 서빙고와 양재, 대전, 인천, 강동, 시드니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실행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통합팀이다. 2016년부터 총 20회 ‘일.하.세.아카데미’를 국내 여러 캠퍼스와 시드니온누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일터에서의 비전과 사역

우리는 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온누리교회 집사로 사회선교본부의 일.하.세.팀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교회 성도들끼리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수율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의 내가 세상에서의 나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묻게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나를 정의하는 일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

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故 하용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터의 영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 하용조 목사는 “목사는 축구선수에게 필요한 감독이며, 코치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역할은 축구선수인 평신도가 한다”고 강조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의 저자 최영수 목사는 “교회는 훈련장일 뿐이며, 세상이 정작 경기를 치르는 곳”이라고 했다. 또한 “주일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실제적인 신앙의 영역”이라고 했다. 방선기 목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일.하.세.사역이 시작됐다.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사회선교의 전부가 아님을 누구나 이해한다. 남의 눈에 보이는 선행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회선교의 기본이 행함에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다. 반대로 나의 내면적 영성을 강화하고, 종교적인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터에서의 비전과 사역

민하는 사람, 세상 문화 속에서 왕따가 되어가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반면 직장 신우회의 부흥을 위해 오는 사람은 예상보다 매우 적다.

일.하.세.팀은 각 사람의 고민에 즉집게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그저 성도 각자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터 속 성도의 모습을 전할 뿐이다.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좋아하고, 대우받을 직업을 스스로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더 나은 직장을 찾기에 앞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예수님의 공감(empathy)과 섬김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나의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노력에 대한 평가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달란트를 주신 그분이어야 한다.

일터는 우리에게 돈과 의미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곳이다.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신우회 동역자를 찾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격리되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에 적응해서 한 걸음씩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자라나야 한다.

“일터는 우리에게 돈과 의미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곳이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격리되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하기 전 성도들이 치유 받고 힘을 얻어가는 속도로 휴게소 같다”고 말했다.

일.하.세.사역을 ‘Marketplace Ministry’라고 부른다. 직장 선교, 비즈니스 선교, 직업 사명, 일상의 영성 등과 같은 말로 대체가 가능한 용어다. 현대적인 신앙관으로의 일터사역은 일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해내려는 목적 사역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영성운동에 가깝다.

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터 속 성도의 모습

일.하.세.아카데미는 일.하.세.팀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다. 일 년에 몇 차례 개최한다. 이곳에 오는 분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세상에서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 직장 내 동료나 상사, 부하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괴로운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힘을 느끼는 사람,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자신의 모습이 현실과 타협한다는 자괴감으로 고

사역칼럼

일터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세현 집사
(사회선교본부
일.하.세.팀 팀장)

일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심에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삶의 큰 전환을 겪으면서 2012년 말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었다. 2013년 양재온누리교회에 있었던 ‘일터사명컨퍼런스’, 2016년 오쇼행전 ‘목상하는 목수들’에 참가했다. 그때 받은 은혜는 기업과 경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일과 일터’로 부르심이 확대되고, 삶뿐만 아니라 교회사역으로까지 그 사명이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인천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던 나는 어떻게 이 사역을 할지 구하던 중에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과 일터사명에 대한 대화와

고민 등을 계속 나눴고,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일.하.세.아카데미를 도왔다. 2021년부터는 사회선교본부 일.하.세.팀 팀장으로 섬기는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터 비전에 참여하게 하셨다. 일터사역이 그리스도의 증인 된 나의 비전과 사명이 되게 하셨다. 내 변화의 씨앗은 깊은 상처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해 방황하며 방탕이 일상이던 청년 시절 뿌려졌다. 대학원에서 두 분의 전공교수님이 경영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다음세대 훈련 프로그램 ‘기독교경영아카데미’에 나를 추천하셨다.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을 받았다. 답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요 6:37)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던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그의 백성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질문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 누가 주인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일과 서 있는 곳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하나 고민하고 깨닫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일터로 보내신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씨앗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벧후 3:18)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다. 불의한 일터가 더럽다고 떠나가는 선후배 청년을 보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게 하였고, 의학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통해 줄곧 경영과 일터에 대한 죽음도 유익한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셨다. 경영컨설턴트 일은 너무 어렵고 있을 곳이 아니라고 도망가려 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기억하게 하셨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지 구할 때 기업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문화의 문제임을 알게 하셨다. 조직문화와 변화가 나의 일하는 영역이 되게 이끄셨다. 사업 실패 후 새로운 문제

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실 새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동안 일.하.세.아카데미를 통해 만난 성도들의 간증에서 일관된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제자로서 정체성 자각,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별과 그 일에 초청받았다는 감사, 일터에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실제적 변화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의 결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터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유혹이 많은 영적 전쟁터이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할 현장임을 매일 보게 된다.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를 주장하는 일, 일터를 만들고, 주의 뜻을 따라 경영하는 일에 죽든지 살든지 계속 서 있을 것을 다시 결단한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전하고, 일터사명자들을 세우며,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 기술 문명 발전과 환경문제

교회가 망가진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이석희 선교사
(TIM, 인도네시아)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영혼 구원과 더불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 생태계 영역까지 복음이 침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구 생태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낀다.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 생태계 변화'

현대 기술 문명 발전 이면에서 대규모 자연 파괴, 생물 종 멸종,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 말씀에서 세상(kosmos)은 인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주(ordered system)를 포함한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배후에 숨겨진 자연 파괴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를 깨뜨려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창조질서 파괴와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계 변화의 실례를 살펴보자.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조호제는 그의 책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에서 생태계 변화를 자세히 기재해 두었다. 2020년 6월 20일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장소인 북극권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최저 영하 69.8도)이 영상 38도까지 올라 유엔 세계기상기구(WMO)의 날씨 기후 극한 기록 아카이브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 2021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온도가 54.5도까지 올라 세계기상관측 사상 최고기록을 갱고, 2022년 1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서 50.7도의 기록적 폭염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7년이었고, 2021년에는 전 세계 해양 온도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남유럽, 인도, 방글라데시, 중동은 산불과 폭염, 흑한, 사이클론, 토네이도 등 아비규환의 재난을 겪었다.

2023년 5월 5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타운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한국 국토의 40%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되었다. 그 영향이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포함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렸지만,
교회가 이 망가진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미국 동부 일대의 대기를 오염시켰다.

2021년 전 세계 상위 10대 기상재난만 따져도 재산 피해가 약 1,700억 달러(한국 돈 201조 8,000억 원) 넘게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도 기후 변화, 숲의 파괴, 생물 다양성 상실, 야생동물 밀거래, 공장식 축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을 질병으로 볼 게 아니라 생태환경의 전체적 맥락에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은 문명을 위해 인간이 마구 파헤친 자연환경은 생태 위기 상태에 이르렀고, 나아가 불평등, 인권 박탈 같은 사회적 문제로 얹혀 피비우스 피쳐럼 맞물린다. 생태계를 극심하게 파괴하는 에코사이드(생태살해)와 인간관계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제노사이드(인간 집단살해 및 파괴)가 그물망처럼 연계돼 나타난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환경기후 전문가 김정옥 교수는 책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에서 자연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다. 김정옥 교수는 코로나19는 기후 변화의 결과이며, 기후 변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자연 착취)이라고 진단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생태계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질병들이 에이즈, 사스, 메르스,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형태로 가족과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질병은 고사하고, 향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기후 재난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인류

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기술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주와 가상현실까지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의 기술도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선상에 있는 단순한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함을 보인다는 기술발달의 한계성을 드러낸다. 그동안 인류가 자연을 객관화하고, 학대하고, 착취한 그대로 자연은 더 가혹하게 인류에게 기후, 생태계 위기를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태 위기와 교회의 역할

사실 그동안 우리에게 생태계 위기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생태계 위기라고 하면 물음표만 띄웠던 것 같다. 우리는 생태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무관심했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생태파괴를 그다지 문제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숲이 파괴되었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땅이 오염되어 병들고 있고, 샘물 근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육토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이 시점에 ‘오늘 나만 편히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나’에서 ‘우리’로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 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닐

까? 자연 생태계의 위기 상황에 이른 지금, 교회는 인간 구원과 사회적 참여, 더불어 생태계 보호 및 구원에도 적극성을 보여 세상에 선한 울림을 줘야 할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22).

성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다.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조호제는 그의 저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류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유의미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30년, 짧으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인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필자는 적도의 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최남단 람퐁지역과 강성한 무슬림권이면서 세계의 관광지인 동인도네시아 롬복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했다.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산림 훼손, 수도 자카르타의 극심한 대기오염,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지진, 산불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 강과 바다의 오염에도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감수성, 식수의 근원인 지하수 원천이 말라가고, 인류의 보금자리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오로지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인간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자연계 포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사상의 관점에서조차 자연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구원과 더불어 생태계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26절에서 자연창조에 대해 먼저 언급한다. 하나님은 일곱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 10, 12, 18, 21, 25, 31)고 말씀하셨다. 31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렸지만, 교회가 망가진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100여 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고 먼 조선을 찾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소개하려 한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의 소중함과 선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로 다짐했으면 좋겠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 선교사들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고자 한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체결된 이후 외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89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는 서구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외교관이 들어오더니, 상인들이, 선교사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외교관이나 상인들이 서울이나 개항된 항구에 주로 정착했다면, 선교사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먼 타국에 살면서 풍토병에 시달리다 몸이 허약해져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선 땅에서 죽었다. 어린 자녀들도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이 허다했다.

1890년 7월 28일, J.W 헤론이 양화진 언덕에 묻히면서 외국인 묘지가 시작되었다. 1890년 8월 외아문(外衙門)에서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거 사유지였던 이곳을 매입해서 외국인 묘역으로 조성했다. 조영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도 영국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면서 양화진 묘지가 마련될 근거가 생겼다. 불평등 조약이 분명하나 국제법에 어두웠던 조선 정부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주장에 밀렸다. 1893년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 주변에 담장 설치를 요청해서 얻어냈다. 그 이후 차츰 묘지가 확장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외국인 묘지가 양화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 공주, 청주, 전주, 광주 등 각 지역 선교기지에 크고 작은 묘원이 조성되어 있다. 양화진 묘원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안정된 게 특징이다. 양화진에 안장된 외국인은 417명이다. 국적은 남아공,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호주, 한국 등이다. 이 중에서 선교사는 145명이고,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국적을 가진 분들이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 인물들이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짊어지며 탐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주에 걸쳐 일일이 소개하고자 한다. 지면에 소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미리 고백한다.

A구역 묘원에 묻힌 선교사들

처음 소개할 분은 웰본(Welbon, Arthur G. 1866~1928) 선교사다. 묘비번호는 A-50, 51, 52로 가족묘에 묻혀 있다. 웰본 선교사는 한국에서 1900년부터 1928년까지 사역했다.

웰본 선교사는 1900년 내한했다.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 해인 1901년 간호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사라와 한국에서 결혼했다. 1909년부터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태백산 남쪽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간호사였던 부인과 함께 농촌과 산골짜기를 다니며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다.

1919년 사라 선교사의 건강이 악화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3년 뒤 웰본 선교사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구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던 중 1928년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양화진에는 웰본 선교사와 첫째 아들 하비(태어난 지 10일 만에 사망), 3살 때 사망한 딸 엘리스가 함께 안장되어 있다. 아내 사라 선교사는 1925년 미국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 선교사는 위더슨(Widdowson, Mary, 2898~1956) 부인이다. 묘비번호는 A-31이다. 그녀는 한국에서 1926년부터 1933년까지, 또다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천국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선교 활동을 했다.

위더슨 부인은 구세군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다. 그녀는 남편 크리스 위더슨과 한국에 들어왔고, 고아들을 위해 삶을 헌신했다. 서울 변두리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부부의 첫아들도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자랐다. 병에 걸린 고아들을 데려와 치료하고 돌봐주느라 늘 병균에 노출되어 있었다. 부부가 발진티푸스에 걸리기도 했다.

7년 뒤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되어 한국을 떠났다. 부부는 기도 중에 “한국으로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다. 1953년 1월 부산에 도착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다. 고아들의 어머니로 살던 그녀는 1956년 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남편에게 남긴 유언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두란노 신간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오늘도, 내일도 지구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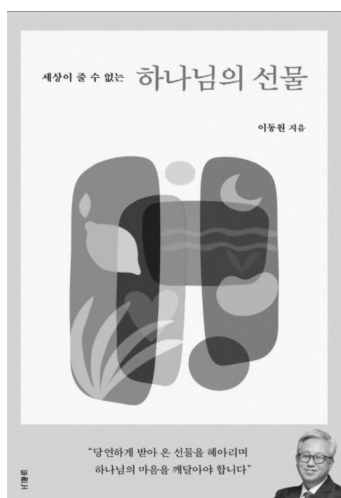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 게이로드 벨슨 상원의원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킨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이 주간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 등을 알리는 무등산 꺼안기, 자전거 대행진, 전국 소등 행사 등이 열린다.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지구의 날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줄이기, 전기 절약하기, 소등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심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20가지 선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동원 저 | 두란노 | 14,000원

물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의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다.

그리스도인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다.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때 받는 사람을 생각한다. 그래서 선물에는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도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동원 목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을 펴냈다. 구원, 환난, 재능, 권력, 천국 등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20가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왜 그것이 선물인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도록 격려한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도, 비성경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권력과 재



‘베드로의 고백’
아가파오 워십 곡

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장면이 나온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 21:17b).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찬양 ‘베드로의 고백’은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 새사람사역팀(교도소사역)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사랑 자매(가명)

이제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다. 알았더라도 내 현실에 무너져서 어떠한 것도 하기가 싫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하고 있었다.

교도소사역을 하는 새사람사역팀에서 진행하는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같은 마음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기 싫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 봉사하러 오셨으니 대충 듣는 척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숙제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만큼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매주 찾아오시는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숙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열심히 해보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매주 양육자님의 교육을 듣고, 만남이 이어지면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죄를 지어 이곳에 왔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사를 해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친

절하게 알려주셨다. 만약 내가 양육자였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봤을 것이고, 교육도 대중했을 것 같은데, 내 예상과 다른 양육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열심히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다.

아직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믿음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실례가 될까 싶어서 하지 않았던 질문이 있다. “하나님 믿고 행복하세요?”라고 묻고 싶었다. 이제는 이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가 본 양육자님의 표정, 해주시는 모든 말씀에 행복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신앙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늘 성심성의껏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든 양육자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사람사역팀 일대일 양육자 모집

문의: 010-3242-8743

■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강좌 참가자 소감



/ 전성심 권사(중종로공동체)

유사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한다. 우리 집만 해도 여러 권 있고, 성경 이해를 돕는 책들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이 어려웠고, 구약의 제사 법이나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였다.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중에 교회 게시판에 붙은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홍보물을 봤다. ‘구약 시존2(사사시대~통일왕국시대)’에 이어 ‘구약 시존3(분열왕국시대~페르시아시대)’를 수강했다.

‘공부는 지루하지만, 이야기는 재밌다!’는 홍보 문구를 보면서 ‘과연 나도 의지가 아닌 재미를 느끼며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 권의 책, 하나의 드라마’로 바라보고 읽을 때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사님은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가셨다. 역사와 지리에 취약한 나로서는 다소 부담이었지만, 조원과 나눔에서 도전과 격려를 받았다. 어느새 이스라엘의 지명을 들으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진다.

〈사사기〉강의에서는 숨겨진 주제인 ‘과연

공부는 지루하지만,
이야기는 재밌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를 찾아보며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17:6)는 말씀을 깨달았다. 숲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을 기억하고자 했던 내 통독의 궤도 수정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분열왕국시대’를 수강할 때였다. 대부분 기억하는 조선 왕조의 계보를 예로 드시면서 이스라엘 분열왕국 왕의 계보 암기에 동기 부여를 하셨다. 그런데 이름이 낯선 왕들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았다. 동요 곡조에 붙여진 암기 비법을 찾아 재빨리 공유해 주시는 조원들과 웃으면서 암기했다. 비록 지금은 입안에 서만 맴돌지만 더는 분열왕국의 왕들이 형클어진 실타래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강좌는 봄학기에는 신구약 중간사가 진행 중이고, 가을학기에는 신약 시존1(연대기로 보는 사복음서)과 신약 시존3(다니엘서, 요한계시록)가 열린다. 〈연대기로 보는 사복음서〉강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시간에 따라 살펴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강의는 마지막 때의 놓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 있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2814-0254

■ ‘Why Mission?’ 수료 간증



/ 양윤정 성도(강남E공동체)

‘미션’,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간다는 것’과 ‘힘지에서 핍박받으며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나의 고정관념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역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는 말씀이 완전히 깨뜨리고 변화시켰다.

매주 ‘Why Mission?’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미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리고 자문자답이 이어졌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갈 수 있겠니?”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진짜 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문득 <깨어진 그릇>의 저자 김태환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서 다시 들었다. 예전에 들었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했었다. 그런데 ‘Why Mission?’을 수강한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디든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선교사님처럼, 나도 답할 수도 있겠다는 변화가 있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 순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나라에 와서 의료,

나에게 미션
(Mission)이란?

교육 등에 힘을 다하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한국을 위한 꾸준한 중보기도와 선교사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듯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을 위해 빛 진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안산M센터를 방문했을 때 복음 전도, 예배, 제자 훈련 등으로 이주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와이무슬립’ 등을 공부하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선교단체를 돕거나 교회에서 선교 관련 사역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의 결단은 아직 힘들지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와 다짐이 되는 시간이었다. 7주 동안 함께 한 스태프들과 강의를 해 주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해피맘 수료 간증



/ 김자영 성도(은현교회)

2022년, 성경과 복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독서 모임 등을 하고 있었다. 그때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접수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석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가정환경과 상처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냈다.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배우면서 뜻깊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짧고, 아쉽다는 생각에 후속 프로그램인 ‘해피맘’에도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해피맘 시작을 앞두고 두 명의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에 참석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첫날 만남과 나눔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멋지구나!’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런데 해피맘 첫 번째 만남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함께한 리더님과 동기들과 나눔도 하나님

해피맘까지 해야
진정한 마무리

의 역사하심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 해피맘에서 ‘나 회복하기’, ‘부부관계 회복하기’, ‘자녀관계 회복하기’, ‘공동체 회복하기’를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면 후회스러운 나날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신에게 하루 다섯 번 이상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과제도,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은혜였다. 내가 사랑스러운 이유와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쓰는 시간도 있었다. 그 글을 받아본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서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책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를 읽고 요약하고 적용하는 과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성이라면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해피맘까지 해야 진정한 마무리’임을 깨달았다. 지인들에게 두란노어머니학교와 해피맘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 삶을 하나님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

장로칼럼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서둘러 핀 꽃은 서둘러 사라진다. 새봄에 핀 꽃은 봄이 가면 시들고, 여름에 핀 꽃이 지고 나면 또 가을꽃이 핀다. 나의 인생을 사계절에 빗댄다면, 봄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와 서 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되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을꽃으로 올곧게 피어날 것이다. 작은 글을 쓰고 성찰하며 배우려는 마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용기, 꺾이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 길을 오롯이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넓고, 더 밝고, 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큰 문이 아니라 콧구멍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오솔길처럼 좁다란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꿀 것이다. 늦가을에 된서리가 내려도 향기를 뿜어내는 가을꽃처럼 찬란한 가을빛 속에 알곡으로 여물어 갈 것이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글씨나 글자를 자기만의 필체로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다. 나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나만의 필체로 글을 써 보는데, 늘 어색한 마음뿐이다. 내가 어릴 적 할아버지는 한시를 쓰면서 벼루에 먹물 가는 일을 손주인 나에게 늘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서예반에서 ‘한 일(一)’자부터 붓글씨를 배웠다. 한 일(一)은 쉬워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글자다. 여백이나 공백이 지배하는 화선지에 한 호흡으로 ‘한 일(一)’을 띄우는 것은 단순 필획처럼 보이지만, 쓰는 이의 공력을 엿보게 하는 글자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글씨는 마음의 표현으로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이 바로 나다’를 좇아 쉽 없이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현실의 참혹함과 인간의 한계 속에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창조적 의지로 자기 길을 간 사상가였다.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는 오십 세가 되던 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나 원근법도 잘 몰라 공간감이 없었다. 미술평론가들은 그를 조롱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 루소의 화풍은 기교는 부족하지만, 소박하고 환상적인 모습을 구현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미국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쉰네 살에 발표한 ‘My Way’는 나의 길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는 계획한 길을 한 걸음씩 걸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야. 그래 그것이 내가 걸어 온 인생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믿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자존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자기계발의 기준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해서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만의 자존감 높은 흡족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말했다.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 땅에 온 목적대로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다.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권사칼럼

나의 꿈은 ‘ing’ 이다!

박인숙 권사
(신웅산공동체)

10년 전 <온누리신문> ‘권사칼럼’에 나의 최초의 글 ‘만년소녀라 꿈꾸지’가 실렸다. 그 글에서 ‘전반보다 후반 인생이 더 아름다운 만년소녀, 전도는 내 인생 대박이다’라고 작은 소리를 내보았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글을 써서 발표해 본 적도, 심지어 초중고 시절 글짓기로 상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다.

온누리전도학교 사역자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접근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움을 서로 나누었다. 나는 평소 병원전도를 하면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다가갈지 늘 고민했다. 목사님의 설교나 독서, 미디어 등을 통해 접촉점을 찾아 현장에서 활용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모임에서 이것을 나누었더니 ‘상황에 따른 전도접촉점’이란 강의 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40분 주어진 시간 안에 내 경험 사례들을 전했다. 전도훈련을 받으러 온 훈련생들에게 강의하러니 두서없는 말로 핵심을 놓칠까 봐 원고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짧고 명료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말하기와 쓰기 훈련이 필요했다. 그때마다 <온누리신문> 권사칼럼에 전도 간증과 손주들 양육한 이야기를 썼더니 기자가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었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내 안에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어놓았다. <온누리신문>은 나를 늦깎이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

내 나이 65세에 ‘꿈의 보물지도’를 만들었

다. 온누리교회 캠퍼스를 다니며 전도 강의하기, 매주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책의 저자 되기, TV 출연하기(KBS 아침마당, CGN) 등을 도화지에 써 거실에 붙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이 5년 만인 70세에 거의 이루어졌다. <전도여왕의 전도레시피>라는 책이 출간되었고, 기독교계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은 전국 교회를 다니며 전도 강의를 한다. 전도는 하나님의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꿈을 꾸게 하신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이 좀 더 먹어 봐, 꿈은 무슨 꿈? 아프지 않는 게 꿈이지. 꿈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럼 나는 “꿈같은 소리를 해야 꿈을 이루고, 꿈이 있으면 그 꿈에 에너지를 쏟기에 아픈 곳도 빨리 회복된다”고 대답한다. 듣는 사람들도 솔깃해한다.

요즘 꿈이 없다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에 잘 찾아보면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의 교집합을 찾으면 반드시 꿈이 보인다. 이걸 찾아 기록하고, 매일 20분씩 투자해 보는 것이다. 놀랍게도 꿈이 있으면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신나서 그 일이 단축된다.

병이나 가난,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인생은 항상 전성기다.

“오 하나님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시 71:18).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늘 설레게 한다. 하나님의 꿈은 아픈 곳이 많고, 약하고, 열등감 많은 나를 덮어버리고, 새롭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한다. 나의 꿈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내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나의 꿈은 ‘ing’ 다.

신앙에세이

김승수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인천은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곳이다. 지금부터 140여년 전 선교사님들이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된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꿈을 꾸다. 인천 송도에 예배당이 세워진 지 4년째를 맞

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에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성전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처럼 새로운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한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꿈꾸는 것은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천온누리교회에 주신 세 가지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이다. 한국 교회와 민족, 열방의 미래가 될 차세대와 대학청년들은 귀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리더십들로 자라가는 차세대와 대학청년들, 이들

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과 멘토들, 모든 성도가 다음세대의 부흥을 꿈꾼다. 매년 2월 말은 가족이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새벽기도회 ‘Wake Up’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를 통해 차세대와 대학청년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둘째, 이 땅의 이주민과 유학생을 향한 비전이다. 인천은 지역 특성상 많은 이주민과 유학생이 있다. 이주민과 유학생은 ‘이 땅에 온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전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다문화 공동체인 ‘모자이크 공동체’다. 현재 몽골,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함박마을에서 이주민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함박웃음’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오는 5월에는 함박마을 이주민들과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준비

하고 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이주민과 유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꿈꾼다.

셋째,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비전이다. 이러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청년들과 성도들이 민족과 열방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Resound’라는 선교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IOMC(Incheon Onnuri Online Mission Conference)’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연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직접 듣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9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송도에서 열린다. 한국의 복음이 시작된 곳에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새로운 선교 역사를 꿈꾸는 로잔대회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곳에 인천온누리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인천온누리교회가 로잔대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 새로운 영적부흥이 시작되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화예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운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67기 온누리 내적치유학교
일시: 5월 17일~19일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회비: 18만 원(교역자 20%, 부부, 가족 20% 할인)
신청: 5월 11일까지
문의: 010-6330-7634

창조과학탐사여행 참가자 모임
일시: 5월 18일~19일(1박2일)
장소: 강원도 태백, 삼척, 동해 등
신청: 아이스쿨
회비: 15만 원
문의: 010-7636-630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운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브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목회지원실 계약직 간사 채용공고
업무: 교회 행정 및 목회사역 지원
문의: 02-570-7447, 7396
*세부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고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골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운유흐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품홀 / 유치부 9:00 2층 예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온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온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ἀπὸ Παύλου

바울로부터

바울의 흔적이 전해 온 메시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난 바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울로부터 Part 2

풍경에서 만나보세요

CGN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방송



바울로부터
공식 홈페이지



바울로부터 5편
바로보기

